

## ‘인간적 아우라’를 뽐어내는 책

아름다운 책, 스기우라의 이노우에 작품집들

정병규 | 정디자인실 대표 · 홍익대 겸임교수

뉴미디어 발달은 책의 새로운 존재적 특성을 밝혀준다. 미래의 책은 이제까지 책이 누려왔던 정보성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적 신체성을 새롭게 발견한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책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한다.



‘아름다운 책’이란 잘 만든 책이다. 잘 만든 책은 디자인이 잘 된 책이다. 잘 디자인된 책은 원고의 뒹뒹이, 편집의 짜임새, 제작의 마무리가 조화를 이룬 책을 말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우러지게 하는 것은 정성이다. 정성이 배어 있는 책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아우라를 감지한다. 이 인간적 아우라가 바로 다른 매체와 견주볼 때 책만이 가지는, 책만이 풍길 수 있는 특징이다.

### 책에만 어울리는, 살아있는 가치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책이 가지는 물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종이와 잉크로 대표되는 책이라는 물질, 오브제와 독자 사이에서 책을 살아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인간적 아우라다. 뉴미디어에는 이것이 없다. 뉴미디어적 대상들은 무표정하고 철면피하다. 빠르고, 정확하고, ... 냉혈한이다. 뉴미디어적 매체에서 느끼는 이러한 우리의 감정은 그것의 기본이 디지털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책이, 물성이 만들어내는 인간적 아우라의 세계는 디지털의 정보성의 세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그러나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책에만 어울리는 피가 도는 삶의 공간에서만 살아나는 가치일

것이다.

뉴미디어의 발달은 오히려 책의 새로운 존재적 특성을 서서히 밝혀주고 있다. 이것들은 뉴미디어 이전의 책이 가지고 있던 정보성—활자세계의 디지털적 요소—이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발견되고 있는 세계다. 이제 오늘의, 미래의 책은 지금까지 책이 누리고 있는 정보성을 굳이 고집하지 않는다. 대신에 인간적 신체성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롭게 찾아지는 영역에서 우리는 책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한다. 뉴미디어 이전의 책과 지금 새 길을 모색 중에 있는 오늘의, 미래의 책은 완전히 다른 세계다. 뉴미디어 때문에 밝혀지는 새로운 책의 세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자책은 책이 아니다. 책이라는 보통명사에서 영역 구분이 확실해지고 있다.

맥루한이 말한 ‘활자인간’을 오늘의, 미래의 책에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부터의 책은 맥루한이 생각했던 그때의 책이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맥루한이 보지 못했던 여러가지 책의 요소 중에서 특히 책의 아름다움, 책의 물성적 세계, 책의 아우라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말한 ‘전자적 인간’의 특징이 발전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허한 자리를 메꾸고 있다. 뉴미디어와 올드미

디어는 결투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이미 악수를 하고 있다. 상극의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 관계로. 책은 이제 아름답게 만들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책은 아름답게 살아갈 것이다. 오늘의, 미래의 책은 지금까지의 책과는 다르다.

### 이노우에의 작품집들

지난달 6월 24일에 나는 오랜만에 예술의 전당 서예관을 찾았다. 일본의 전위서예가 이노우에 유이치(井上有一: 1916~1985)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서. 그는 일본에서는 이미 대가의 자리에 놓인 전위서예가다. 아니 서예가이기보다는 화가, 아니 그냥 예술가라고 불러져야 할 사람이다. 로버트 마더월이 이노우에를 이미 ‘대예술가’로 부르고 있다. 그는 한자의 한 문자(一字)를 여러 번 계속해서 쓰기로 유명하다. 그의 서예—편의 상 서예로 말하자—는 이미 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문자이면서도 문자가 아닌 세계가 그의 전위 서예세계다. 전통 서예가 문자의 의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 반해 그의 서예는 문자의 의미성, 문장의 이야기성을 넘어서고 있다. 이 지점에서 그의 세계는 현대 추상미술의 탈서사성과 만난다.

나는 전시장에서 그의 전 작업을 수록한 전집과 또다른 한정판 한정권을 살 수밖에 없었다. 평소 수준에 비해 거금(?)이 들어있던 지갑은 바닥이 나고, 내가 그 책들을 산 까닭은 이노우에의 작업을 곁에 두고 천천히 빠져들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그 책이 아름다운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 책들은 동경의 '우낙도쿄'라는 한정본만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발행됐고(나는 이 출판사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일본의, 아니 세계에서든 최상급 디자이너인, 우리 나이로 지금 68세인 스키우라 고헤이(杉浦康平)의 작품이었다.

### 문장의 이야기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의 디자인을 보는 순간, 나는 스키우라를 서울의,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 직접 만나기라도한 것처럼 반가웠다. 나는 그만큼 그를, 그의 디자인을 좋아한다. 내가 그의 북디자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것은 스키우라 디자인의 절묘한 아름다움 때문이다. 그의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오랫동안 탐구결과인 동양적 지혜와 동서양을 넘나드는 깊이와 넓이를 갖춘 지식과 절묘한 조화의 점점에서 찾아진다. 그의 디자인을 언젠가부터 나는 '기(氣)의 디자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의 기는 그의 디자인이 어

디에 놓여 있어도 금방 나에게 인간적 아우라를 보내온다. 나는 그날 산 책 외에 또 한편의 이노우에 작품집을 가지고 있다. 이노우에의 사후에 발행된—이것도 우낙도쿄에서 나왔다—

《井上一絶筆行》  
33cm×26.5cm  
58쪽·98쪽·케이스

《井上一絶筆行》이라는 작품집이다. 이 작품집의 디자인도 물론 스키우라의 것이다.

### 동서양을 넘나드는 절묘한 조화

87년이였다. 그는 동경에 머물고 있던 나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방문을 권했다. 그전에도 몇차례 들렀던 그의 유명한 시부야 사무실로 나는 재결음으로 달려갔다. 그날은 내게 매우 뜻깊은 날이 됐다. 사무실에는 이미 그의 아름다운 책들이 빛나게 펼쳐져, 아니 놓여져 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실물을 직접 보는, 스스로 만져보는 느낌이란 나같은 직업가진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황홀한 순간이었다. 또 그의 친절할 설명은 나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들었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내게 아무 책이나 한가지(한권이 아니다) 가져도 좋다고 했다. 아찔한 순간!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인가. 한참 후에 선택한 책이 위에서 말한 그 책이다. 이노우에에 대해 조금, 아주 조금밖에 모르고 있던 나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두권이 모여져 하나의 상자에 들어 있는 그 책은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아름다운 책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본 669권 중 430번이라는 번호가 빨간 색으로 찍어진 책이다.

나는 일본어를 읽지 못하지만 그의 디자인과 이노우에의 서예 문자—서예기호와의 절묘한 조화를 볼 때마다 전해준다. 그때마다 내게 전해오는 그의 정성이 손 끝에 묻어나는 느낌이다. 이노우에의 작품인 느낌표들은 하나 하나 스키우라가 만든 아름다운 그 책에서 내가 느끼는 감탄의 느낌표로 다시 살아나곤 한다. 이번 이노우에 디자인전 때 만난 그의 작품 전부를 수록한 작품집은 전3권으로 발행될 예정인데 아직 한편이 미간된 상태다. 그 책에서는 스키우라의 지성이 또 듬뿍 담겨 있어 《絶筆行》의 절묘한 디자인적 감성과 짝을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하다. 87년 동경, 벌써 12년전... 나는 서울에서 또 그의 아름다운 책들과 만나고... 그의 아름다운 책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나의 작업수준을 생각하면 조금은 쓸쓸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노우에와 스키우라와의 만남은 어쩐지 앞으로도 지속될 것같이 그의 아름다

운 책들을 또 만져볼 수 있는 설렘을 위안으로 삼는다. ●

《井上一全書樂·제3권》  
23.2cm×31.5cm  
648쪽·케이스

